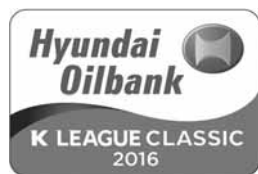


# ‘개막전 사나이’ 광주FC 정조국 2골 폭발



포항 스틸러스 원정경기 3-3 무승부

2-3 역전패 위기서 추가시간 동점골

지난 12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가 3-3 무승부로 끝난 뒤, 두 골을 기록한 광주 FC의 공격수 정조국은 “프로 14년차인데 다시는 이런 축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광주 사령탑 남기일 감독은 “좋은 보약 한 접을 먹은 것 같다”며 묵묵한 표정을 지었고 포항 스틸러스의 최진철 감독은 “멘붕(멘탈 붕괴)이다”는 표현까지 썼다.

광주와 포항의 K리그 클래식 개막전이 열렸던 포항 스틸야드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결과는 3-3 무승부였지만 2-0에서 2-3 그리고 다시 3-3으로 전개된 속박하는 승부였다.

‘패트리어트’ 정조국이 두 번째 골을 넣을 때만해도 이날 경기는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광주의 완승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전반 13분 광주 유니폼을 입고 치른 첫 무대에서 정조국이 폭격의 시작을 알리는 슈팅을 날렸다. 오른쪽으로 패스된 공이 골키퍼의 품에 안기고 말았지만 3분 뒤 정조국이 포효를 하며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다.

전반 16분 광주 진영에서 길게 올라 온 공이 김민혁에게 연결됐고 김민혁은 앞쪽에 있던 정조국에게 공을 찰라주었다. 그대로 페널티박스 안으로 질주한 정조국은 상대 골키퍼 신화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공을 차 넣으며 골대를 갈았다.

이후 양팀은 5대5의 공 점유율을 보이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포항 라지르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광주에게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후반 20분 정조국이 다시 한번 광주 벤치를 들쭉이게 하며 승리를 부르는 것 같았다. 조성준의 패스를 받은 이요름이 최진철까지 올라간 뒤 골대 앞에 위치해 있던 정조국에게 공을 넘겨줬다. 정조국은 여유롭게 공을 터치하며 두 번째 골

을 터트렸다.

광주의 개막전 승리가 보이는 것 같았지만 후반 24분 상대 공격수와 공을 다투던 수비수 이요름이 두 번째 경고 카드를 받으면서 경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이날 좋은 플레이를 해줬던 이요름의 퇴장에 이어 중앙을 방어하던 이찬동까지 근육 경련으로 교체되면서 광주의 진영에 변화가 생겼다.

포항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오는 행운과 골키퍼 최봉진의 슈퍼 세이브도 있었지만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후반 42분 터진 포항 양동현의 대표알같은 중거리 슈팅이 예측불허의 10분을 갈고이는 신호탄이었다. 3분 뒤 포항 심동운의 골이 터지면서 90분의 승부는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주어진 6분의 추가 시간. 후반 47분 득점포가 가동됐지만 이 역시 포항의 차지였다. 경기장을 채운 홈팬들의 환호로 경기장이 들끓었고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포항이 극적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았다.

여기에서 끝났다면 종종 나오는 그런 경기로 끝났을 것이다. 진짜 경기는 마지막 1분에 펼쳐졌다. 주심의 짧은 휘슬과 함께 양팀 선수들이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기 종료로 앞두고 전개된 광주의 마지막 역습 상황. 골대 앞에서 광주의 베테랑 이종민이 상대 수비수의 파울에 쓰러졌고, 페널티킥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 것이다.

그리고 광주 김정현이 경기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골키퍼 앞에 섰다. 길게 심호흡을 한 뒤 때린 공은 골망을 흔들었고 동시에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양팀 모두 승리를 내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폭풍 같은 개막전이었다.

포항=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당백 정조국 광주 FC의 정조국이 지난 12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2016시즌 개막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반지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 “매순간 최선... 베테랑의 힘 보여주겠다”

### 정조국 인터뷰

‘패트리어트’ 정조국의 폭격이 시작됐다. 광주 FC의 새로운 공격수 정조국이 개막전에서 두 골을 터트리면서 부활을 알렸다. 정조국은 지난 12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2016 K리그 클래식 개막 경기에서 광주의 시즌 1호골을 이어 2호골까지 장식했다.

정조국은 “몸상태가 완벽하지는 않다. 더 찬스를 살려야 했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국가대표 출신은 실력과 베테랑의 노련함으로 연달아 두 골을 넣으며 3-3 무승부의 주인공이 됐다. 그가 때린 5개의 슈팅은 모두 유효슈팅으로 기록됐다.

정조국은 “기분이 좋다. 정말 오랜만에 골을 넣었는데 나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자신감도 많이 붙을 것 같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 같다. 남기일 감독님의 선택이 어찌 됐든 오늘까지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믿음에 보답해서 좋다. 앞으로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감독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며 “공격수에게 첫 골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빨리 첫 골이 나와서 기쁘다. 골을 넣는 게 나의 의무고 직업인데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족했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조국은 “고참으로서 좀 더 후배들을 잡아줘야 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베테랑의 힘이 더 발휘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고 돌아봤다.

승리의 인터뷰는 하지 못했지만 그는 값진 승점 1점을 만들어준 후배들이 기특하고 감사하다. 후반 46분 김진환과 교체되어 나온 정조국은 벤치에서 팀이 역전을 허용하는 모습과 다시 동점을 만드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첫 경기라서 부족하고 안 맞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지가 중요하다. 지금은 후배들에게도 나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라도 포기했을 것 같은데 후배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비겼다는 게 고맙다. 광주만의 경기를 한 것 같다. 앞으로 시즌을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승점이 될 것 같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광주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한 정조국은 오는 19일 안방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에게도 긴장되고 기대되는 홈 개막전이다.

정조국은 “승부에만 집착하면 경직될 수 있으니까 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1주일 남은 시간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준비 잘하겠다.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포항=김여울기자 wool@

구자철, 페널티킥 유도

아우크스 2-2 무승부



구자철(27·사진)이 경기 막판 동점 페널티킥을 유도한 독일프로축구 아우크스부르크가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열린 2015-2016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6라운드 SV다름슈타트와 원정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1-2로 뒤지던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44분 구자철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다름슈타트 수비수 산드로 시리구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알프레드 핀보가순이 이것을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차 넣어 2-2 동점을 만들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이날 비겼지만 최근 리그 경기에서 3무1패로 승리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5일 레버쿠젠과 25라운드 경기에서 혼자 세 골을 몰아친 구자철은 이날 페널티킥 유도도 팀에 기여했다.

수비수 홍정호(27)와 구자철은 이날 나란히 선발로 나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아우크스부르크는 6승9무11패, 승점 27로 한 경기를 덜 치른 베르더 브레멘을 제치고 18개 구단 가운데 13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산행안내

해의 개재불가

3월 16일(수)

▲광주청룡산악회 3월 16일(수) 전남 광양시 쪽빛산(매화축제), 백운동로타리 07:50, 교원공제 회관 08:00,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후문 08:10, 동광주 IC 입구(농산물 경매장 옆 버스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9411 4590, 010 8766 0170

3월 17일(목)

▲스마트 산악회 3월 17일(일) 제77차 보성 오봉산(시산제)일대, 영주 상무정 앞 08:00, 무각사 앞 08:10, 칠담 교동공원 08:20, 비엔날레 주차장입구 08:30, 문예후문(신청자 없음 통과) \*다음카페 스마트산악회 ☎ 010 5656 5959, 010 3621 7821, 010 9380 3281

3월 18일(금)

▲광주요산악회 광양 쫓비산과 매화축제장, 광주역(무암동 홀플러스 경우) 08:00 \*다음카페 광주요산악회 ☎ 010 9860 0173, 010 3821 9090

3월 19일(토)

▲광주청정산악회 3월 19일(토)~20일

(일) 제주도 특별 산행, 월드컵경기장(삼무정 건너편) 05:50, 봉선동 한일병원 06:00, 산수오거리 06:05, 광주역/앞 06:10, 운암동(문화예술회관)후문 06:20, 비엔날레주차장 06:30, 하남 신현은행 앞 06:40 \*다음카페 광주청정산악회 ☎ 010 2798 3994, 010 8627 9945

▲광주금당산악회 3월 19일(토) 충북 대미산-악어봉,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06:30, 영주체육관 06:40, 한국병원 앞 06:50, 문예회관후문 07:00, 비엔날레 주차장입구 07:1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3월 20일(일)

▲전남산악회 3월 20일(일) 거창 미너봉(930m), 영주체 06:30, 양동시장-광주역 07:00, 무암동 홀플러스 07:10, 창평고서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 010 3642 5197, 010 3625 1821

▲문흥백두산악회 3월 20일(일) 군산 선유도 섬힐링산행, 문흥동백두산악매장 07:00, 북구미래아동병원 07:05, 일곡동우체국 07:15, 비엔날레주차장도로가(구 도교육청앞도로) 07:30 \*다음카페 문흥백두산악회 ☎ 010 3602 2098

▲광주새무등산악회 3월 20일(일) 경북 문경시(조령산1025m) 문경세계제일, 광주역 07:30, 문화예술회관 후문 07:40, 주

월동 부일자동차 공업사 7:10 \*다음카페 광주새무등산악회 ☎ 010 3616 6300, 010 3901 5667

▲한울산악회 3월 20일(일) 충남아산 천년의숲길, 운전저수지 앞 07:15, 금호사거리 07:20, 남광주농협 07:30, 서방사거리 07:40, 문예회관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네이버카페 광주한울산악회 ☎ 010 3606 2952

▲광주효사랑산악회 3월 20일(일) 완도 금당산 삼산행, 식자재마트 05:40, 해태아파트 05:50, 영주육교앞 06:00, 무각사 06:10, 문예회관후문 06:30 \*다음

카페 광주효사랑산악회 ☎ 010 7725 1353, 010 3618 0967, 010 3603 2021

▲빛고을무지개산악회 3월 20일(일) 대구 팔공산, 영주체육관 07:00, 학동,중심사 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7:20, 광주역 07:40, 문예회관후문 07:45, 동광주웨딩프라자 07:50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 010 3620 2002

▲광주요산회 3월 20일(일) 비금도 선왕산 봄산행, 무각사 05:30, 문예정문 05:35, 광주역광장 05:50, 동광주 홈 06:00 \*다음카페 광주요산회 ☎ 010 3641 7300, 010 8797 8177

3월 23일(수)

▲광주청룡산악회 3월 23일(수) 충남 아산시 예산군 극정봉 봉수산, 백운동로타리 07:50, 교원공제 회관 08:00,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후문 08:10, 동광주 IC 입구(농산물 경매장 옆 버스승강장) 08:20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9411 4590, 010 8766 0170

3월 25일(금)

▲철도산악회 3월 25일(금)~3월 27일(일) [1박2일] 울릉도·독도 광천터미널 05:00 출발 \*다음카페 철도산악회 ☎ 515 7788, 010 9715 1000

3월 26일(토)

▲광주기백산악회 3월 26일(토) 거제 계룡산 진달래와 산방산 남해바다 조망, 영주체육관 07:30, 광주역 07:50, 비엔날레주차장 08:10 \*다음카페 광주기백산악회 ☎ 010 4629 1881, 010 2040 3067

3월 27일(일)

▲한빛산악회 3월 27일(일) 해남 두류산 탐방, 비엔날레주차장 07:40, 광주역(광장) 07:50, 광주시청주차장 08:00 \*다음카페 한빛산악회 ☎ 010 3131 3580

### 임야 삽니다!

▶ 전남북/제주도 지역 땅지분물건 환영! 당일처리!

▶ 개인 직거래 원함. H. 010-3605-5000

### 이름

[작명, 개명]

- 사람의 이름은 참되고(眞) 선하며(善) 아름다워(美)야 합니다.
- 성과 이름의 발음이 조화되고, 세련된 좋은 이름을 정성껏 지어드립니다.
- 아기이름, 개명, 법인상호, 배이름, 아호 \*시비는 맥스 또는 빠른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직명 전문 **광주이름나라** (광명철학관) 수강생 수시 모집중

전화문의 | 010-6808-1693  
환영 | (062) 365-3400

### 채권 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16년 3월 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6년 5월 1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3월 14일  
주식회사 해광수중공사  
전라남도 여수시 소래면 죽림중앙로 29-32  
청산인 김여철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1길 11(묘도동))

### 채권 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16. 2. 3.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6. 5. 15.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3월 14일  
정흥도시가스 주식회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동교길 6-1  
청산인 김병오

## 즐거운 영화 산책

###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귀향
2관	조이
3관	동주/좋은해줘
4관	갯노비집드/주토피아(2D지막)
5관	주연던해즈폴른/주토피아
6관	널기다리며
9관	귀향/히야
7관세너클	널기다리며
8관세너클	프린세스코/리턴투센더/13시간

단체 및 대관문의: 070-4940-0523

### MEGABOX | 하남점 메가박스

현재상영작	금주 개봉작
조이	부활
널기다리며	무스탕

동주/좋은해줘  
주연던해즈폴른/주토피아  
프린세스코/리턴투센더/13시간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  
KTF 멤버십 본인 1000원 할인  
현대M포인트 1인 2000포인트씩  
2인까지 4000포인트 사용  
(현대M카드 결제시 적용)

단체 및 대관문의: 1544-0070  
누르고-6-6-11-4-9(단체별로 안내를 따라가며 누르세요)

### MEGABOX | 상무점 메가박스

1관	갯노비집드
2관	런던해즈폴른
3관	귀향
4관	귀향
5관	널기다리며/히야/프린세스코
6관	널기다리며
7관	데드폴
8관	조이
9관	동주
10관	주토피아/리턴투센더/13시간

단체 및 대관문의: 1544-0070  
T멤버십 동반 4인까지 2000원 할인